

“고국에서처럼 공양 올려요”

나주 심향사, 스리랑카 스님 공양 의식 열어

주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50만이 넘는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불교국가 출신이 대부분.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힘든 생활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에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해 화제다.

6월 21일 스리랑카 노동자 350명은 나주 심향사에서 고국 스리랑카의 스님들을 불단에 모시고 남방불교식 음식을 올리는 공양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심향사에서 준비한 공양물을 국내외에 수행중인 스리랑카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법요식 순으로 진행했다.

원광 스님은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관심을 갖을



6월 21일 나주 심향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리는 스리랑카 스님들에 대한 공양 의식 모습.

때”라며 “앞으로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불교신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지차라 스님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한국에 와있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런 화합의 행사를 열게 돼 기쁘고 고맙다”며 “한국에 있는 2만여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국내에 스리랑카 불자들이 이루어

진 법당 불사를 하는 것이 소원이 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행사에는 내전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고국을 위한 기도와 죽은 이들을 위한 천도제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는 국가적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가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권도와 정신수양 ‘원~원~’

무주 안국사, 태권도 산사체험 성공



무주 안국사에서 열린 태권도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무주 안국사에서 6월 13~14일과 20~21일 두차례에 걸쳐 ‘태권도와 함께하는 산사체험’이 열렸다.

무주 반딧불축제에의 일환으로 진행된 ‘태권도와 함께하는 산사체험’에는 각각 40명 정도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사찰예절과 108배, 발우공양, 연등만들기, 다도체험, 율령 등 다양한 산사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함께 태권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주에서 진행된 ‘태권도와 함께 하는 산사체험’은 조선왕조실록

이 보관돼있는 적산산 사고를 참관하는 문화탐방과 심신을 수련하는 태권도와 정신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산사체험이 어우러진 알찬 수련회가 됐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는 김영수(45·대구)씨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반딧불이도 보고 아름답고 조용한 산사에서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사체험에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인질환 사전 예방에 노력”

고창노인복지관 ‘무료 건강강좌’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궁)은 6월 17일과 26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급격한 농촌 노인 인구의 증가와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그리고 무

위 등의 노인 학대, 자아존중, 힘을 잃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한 노후 만들기 프로젝트’는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노년

의 건강관리, 정신건강, 경제관리, 정서 순화 등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 경제력 약화, 건강상실 등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보건소 구강관리담당 이소영 선생의 생생한 강의로 노년기 구강관리교육과 정신과 전문의의 우울증 대처법, 기본 업 스트레칭, 치매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 교통안전교육 등 실생활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참여 어르

신을 대상으로 ‘고창 건치인 선발대회’도 진행돼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건치인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어르신은 고창보건소와 고창군지역의사와의 사회의 선정을 통해 건치상 외 4종의 시상을 수여하게 된다.

강의 후 어르신들은 필봉예술단의 사물놀이 판굿, B-BOY댄스, 판소리, 퓨전국악 난타, 장고춤 등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료건강강좌에 참여한 김종매 어르신은 “평소 치아 건강과 노년기 치매에 관심이 많았던 어르신은 이번 기회에 복지관에서 강좌를 듣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료강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무궁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의 욕구가 높은 건강강좌를 실시해 노인질환을 사전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6월 26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무료 건강강좌’.

“제대로 알고 실천하며 정진하라”

향림사, 경제회복과 호국발원 위한 외불 점안법회 봉행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는 6월 23일 경내에서 경제회복과 호국발원을 위한 외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외불은 부처님이 오른쪽 옆으로 누워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형상을 말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대흥사 주시), 무등 스님(전통사 주지), 혜향 스님(향

림사 주지)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천운 스님은 법문에서 “무릇 불교란 도덕, 신앙, 철학, 예술적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 불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이치를 알 수 있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법문에 앞서 혜향 스님은 “어려

운 여건 속에서도 외불이 조성된 만큼 불사에 동참해주신 신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된 외불은 2008년 11월부터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길이 6m 30cm, 높이 1m 80cm 규모의 석불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에게는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게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세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얹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 20,000원/중 10,000원/소 5,000원	 등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담범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씨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원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우리지역 부부나눔자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

“1사찰 1복지시설 운영 의무화 돼야”

광주에서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이 광산구 하남, 비야지역이다. 이곳에는 소위 3D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가 몰려 있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불교의 가치관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어 헌신하는 이가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이주성 센터장(사진)이다.

광산구는 광주 구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면서, 전통적으로 사찰의 수가 가장 적다. 아직 불교적 인프라가 전혀 없는 이곳에서 이주성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을 열었다.

이 센터장은 이미 대학 강단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광주지역 불교청년회의 대외부 역할을 해온 만행이다.

그런 그가 이곳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심기위한 복지센터를 연 것은 순전히 불교 가르침을 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됐다.

2007년 8월 센터가 들어선 후, 우리 음악 페스티벌, 풍광 봉사단 창설, 이주여성 국어교실, 가요실, 북아트, 건강걷기대회, 문화유적 답사, 템플스테이, 연등만들기 등의 진행으로 센터는 매주 휴일이면 어김없이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올해도 센터는 이주여성 사물놀이팀 구성, 음악페스티벌, 무료한방진료, 다문화가정 언어치료

라가는 수준에 머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하고, 1개 사찰에 1개의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지역 불교계에는 이주성 센터장의 권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스님과 불자만 벌써 30여 명이 넘는다. 사회복지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료를 공유, 지역 불교복지 활성화를 위해 이 센터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사회복지학 교수가자 현장 실무자로 앞장 서지만, 이주성 센터장은 이미 광주불교계의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이 센터장은 1982년 원각사에 입문한 후 청년회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회장, 중앙회 대의원 부의장 등 20여년 가까이 청년회 활동에 헌신했다. 그가 회장을 맡았던 원각사 청년회는 200여 회원들이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주성 센터장은 “포교와 사회복지사업”은 같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이 현대적 의미의 포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기부, 자원봉사를 동시에 이끌어내면서 불교의 의미를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 자리

www.HyunbulShop.com

이와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